

3부 간지

제10장

엽근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박영구*·박지원**·남호진***·김서영****·백호승*****·오현주*****

1. 배추

- 1.1. 수급 동향
- 1.2. 수급 전망

2. 무

- 2.1. 수급 동향
- 2.2. 수급 전망

3. 당근

- 3.1. 수급 동향
- 3.2. 수급 전망

4. 양배추

- 4.1. 수급 동향
- 4.2. 수급 전망

부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 ygpark@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jjione1105@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namho1992@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ksy1208@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white77@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hyundu215@krei.re.kr

요약

1) 수급 동향

- 2022년 엽근채소(배추, 무, 당근, 양배추) 재배면적은 가을배추와 무를 제외한 모든 작형의 면적이 줄면서 전년보다 1.8% 감소한 60,154ha이다.
- 2022년 엽근채소 생산량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379만 1천 톤이다.
 - 생육기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무, 당근, 양배추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비중이 큰 가을배추 생산량이 크게 늘어 전체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 2022년 순수입량은 전년 대비 13.7% 증가한 58만 4천 톤 내외로 배추와 당근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였다.
 - 배추는 여름철에 수출용 김치 원료로 수입된 물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당근은 연간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국산 당근을 사용하던 외식업체의 일부 수요가 수입산으로 대체되었고,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당근 수입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 2022년 총 공급량은 국내 생산량과 순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3.1% 많은 437만 6천 톤이다. 자급률은 순수입량 증가폭이 커 전년 대비 1.3%p 감소한 86.6%로 나타났다.

2) 수급 전망

- 2023년 엽근채소(배추, 무, 당근, 양배추)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3% 감소한 59,953ha이며, 생산량 역시 0.3% 감소한 378만 톤 내외가 전망된다.
- 2023년 엽근채소(배추, 무, 당근, 양배추) 순수입량은 배추 수입량이 평년 수준까지 줄면서 전년보다 12.7%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생산량과 순수입량을 고려한 총공급량은 2022년 대비 2.0% 감소한 428만 9천 톤이 될 전망이다.
- 2023~2032년까지 엽근채소 재배면적은 연평균 0.4%, 생산량은 0.5% 감소할 전망이다. 배추와 당근, 양배추의 수입량 증가로 순수입량은 연평균 2.0% 증가가 전망된다. 순수입량 증가 영향으로 총 공급량은 0.2% 감소하여 생산량 감소폭보다는 적을 전망이다.

1.1. 수급 동향

1.1.1. 생산 동향

- 2022년 배추 전체 재배면적은 3만 80ha로 전년대와 평년보다 각각 1.4%, 2.5% 감소하였다. 재배면적 비중이 높은 가을배추 재배면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봄·여름·겨울배추 면적 감소폭이 더 컸다.
 - 작형별로 봄배추는 전년도 출하기 도매가격 하락으로 재배의향이 줄면서 전년대와 평년보다 각각 5.7%, 3.0% 감소하였다.
 - 여름배추는 전년도 출하기 가격 하락과 연작피해에 따른 휴경, 양배추·약용작물 등으로 작목 전환되면서 전년대보다 3.4% 감소하였다. 평년의 재배면적 수준은 유지하였는데, 7~8월 도매가격 상승으로 준고랭지2기작배추(7월 하순~8월 상순 정식) 재배면적이 전년대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정식기인 8~9월 높은 가격이 지속되면서 면적 비중이 가장 큰 호남지역의 재배의향이 늘어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전년대와 평년보다 각각 2.0%, 1.3% 증가하였다.
 - 주산지인 해남지역에서 가을배추와 싹배추 등으로 작목이 전환되면서 겨울배추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5%, 평년 대비 11.1% 감소하였다.
- 2022년 배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높은 가을배추 생산량이 늘면서 전년 대비 6.7% 증가한 221만 1천 톤으로 추정된다. 평년보다는 1.1% 적은 수준으로 단수 상승폭이 크지 않은 가운데 재배면적이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 정식기(2~3월) 저온, 생육기(4~5월) 가뭄·고온 등으로 병해 발생 정도가 커 봄배추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6.1%, 12.8% 감소하였다.
- 주산지 잦은 비, 일조시간 부족 등으로 무름병·바이러스 등이 확산되어 여름배추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2.7%, 12.5% 감소하였다.
- 가을배추 생산량은 병해 확산으로 작황이 매우 부진하였던 전년 대비 16.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기저효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평년과 비교할 경우 4.4% 증가하는 수준이다.
- 생육기(11월~12월 중순) 기상 여건이 좋아 단수가 늘어 겨울배추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0-1] 배추 작형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 천 톤

구분		2022	2021	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전체	면적	30,080	30,501	30,864	-1.4	-2.5
	생산량	2,211	2,072	2,235	6.7	-1.1
봄	면적	7,465	7,915	7,699	-5.7	-3.0
	생산량	334	398	383	-16.1	-12.8
여름	면적	5,363	5,551	5,331	-3.4	0.6
	생산량	214	245	245	-12.7	-12.5
가을	면적	13,617	13,345	13,444	2.0	1.3
	생산량	1,340	1,147	1,283	16.8	4.4
겨울	면적	3,635	3,690	4,090	-1.5	-11.1
	생산량	323	281	303	15.1	6.6

주 1) 봄배추는 시설 및 노지 결구배추와 기타배추를 모두 포함함.

2) 2021년 겨울작형 면적 및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3) 2022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임.

4) 평년은 2017~2021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1.1.2.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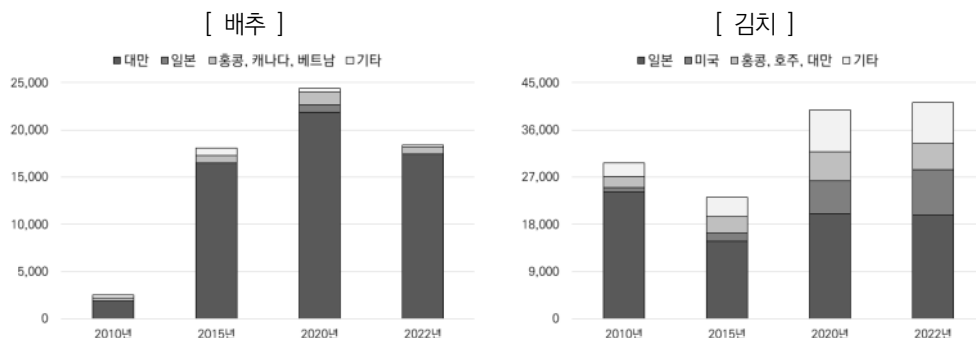
- 2022년 배추 수출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25.4%, 25.8% 적은 1만 8,374톤이다.
 - 2010년 이후 배추 수출량은 증가 추세였으나 기후 변화로 국내 생산량 변동성이 커지면서 2018년부터는 2만 5천 톤 수준에서 증감하고 있다. 2022년에는 여름배추 작황 부진으로 국내 배추 생산량이 줄면서 7~10월 배추 수출량이 2012년 이후 최소를 기록하였다.
- 2022년 김치 수출량은 전년 대비 3.2% 감소한 4만 1,181톤으로 평년보다는 26.6% 많았다.
 - 김치 수출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이후 그 폭이 확대되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전세계에 면역력 향상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그 과정에서 김치가 건강 기능성 식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¹⁾
- 2022년 배추 주수출국은 대만(94.9%)으로 나타났고, 김치는 수출국이 다변화된 가운데 일본이 4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최근 5개년간 배추 수출국 비중을 살펴보면, 대만이 평균 8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캐나다 3.1%, 홍콩·베트남·일본 6.4% 순이다. 2000년대 초반 일본과 대만으로 수출국이 편중되어 있었으나, 2010년대에 들어서며 대만 비중이 높아졌다.
 - 대만은 일본산 배추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등으로 수입선을 변경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만 수출량이 증가하였다.²⁾
 - 김치 수출국은 일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점유율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일본 수출 비중은 90%를 상회하였으나, 2022년은 48%로 낮아졌다. 최근 5개년 기준 일본, 미국, 홍콩, 대만, 호주 5개국이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타국가로의 수출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국은 2010년 54개국에서 2022년 81개국으로 확대되었다.

1) 「2020 김치산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박기환 외, 2022: 30-31)를 참고함.

2) 「강원지역 고랭지 채소 안정 생산 체계 확립」(전신재 외, 2019:174)를 참고함.

그림 10-1. 배추 및 김치 주요국별 수출량 변화

단위: 톤



자료: 관세청

- 2022년 배추 수입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증가한 2,030톤으로 나타났다.
 - 배추 수입은 국내 배추 공급 부족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평균 200톤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였고, 2022년에는 수출용 김치 제조를 위한 원료로써 한시적으로 배추 수입량이 확대되었다.
- 2022년 김치 수입량은 전년 대비 9.5% 증가한 26만 3,422톤이며, 이는 국내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의 물가 인상 여파로 수입 김치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 김치 수입량은 외식업체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30만 톤을 상회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식소비가 침체되고 중국의 비위생적인 배추 절임 영상 등이 공개되면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22년 김치 수입량은 평년 대비 6.8% 감소하였다.

[표 10-2] 배추 및 김치 수출입 동향

단위: 톤

구분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평년
수출	배추	18,374	24,621	24,413	28,700	24,021	25,293	24,776
	김치	41,181	42,544	39,748	29,629	28,231	24,311	32,536
수입	배추	2,030	67	643	450	83	288	274
	김치	263,422	240,606	281,187	306,049	290,742	275,631	282,520

주 1) 배추(신선, 냉장) HS코드 0704902000, 김치 HS코드 2005991000의 실적임.

2) 평년은 2017~2021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관세청

- 김치는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배추 역시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나, 중국산 배추 공급 상황에 따라 간헐적으로 일본과 대만에서도 수입하고 있다.
- 2022년 톤당 김치 수입단가는 전년(585달러)과 평년(495달러)보다 각각 9.9%, 30.0% 높은 643달러이다.
 - 상반기 수입단가는 706달러, 하반기는 593달러로 상반기 수입단가 상승률이 높았는데, 중국 내 생산원가와 해상운임 등 비용³⁾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 2022년 10kg당 국내 판매 가능 가격은 대미환율 상승으로 전년 대비 22.8% 상승한 11,180원 내외이다.

1.1.3. 공급 동향

- 2022년 배추 총 공급량은 국내 생산량과 순수입량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8.3% 증가한 269만 9천 톤 내외로 추정된다. 이는 평년보다는 1.2% 적은 수준이다.
 - 2022년 국내 생산량이 가을배추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6.7% 증가하였고, 수입량에서 수출량을 제외한 순수입량 역시 전년보다 15.9% 늘었다.
 - 한편, 2022년 배추 총 공급량은 평년보다 1.2% 적은 수준으로 이는 가을 작형 이외의 배추 생산량(평년 대비 1.1% 감소)과 순수입량(10.6% 감소)이 평년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 2022년 배추 자급률(김치 수출입량 포함)은 81.9%로 전년 대비 1.2%p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생산량 증가폭보다 순수입량 증가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 2000년대 중반부터 김치 수입량이 크게 확대되며 배추 자급률은 2003년 100%에서 점차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이후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량 증감에 따라 변동을 반복하고 있다.
- 2022년 1인당 배추 공급량은 인구가 감소한 가운데 배추 공급량이 늘면서 전년 대비 8.5% 증가한 52.3kg으로 추정된다.

3) 2022년 상반기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기 대비 3.0% 상승, 한국-중국간 컨테이너선 해상운임은 29.6% 상승함.(中國國家統計局; Shanghai Shipping Exchange, 검색일자: 2022.12.13.)

[표 10-3] 배추 공급 동향

단위: 천 톤

구분	총 공급량 (A+B)	국내 생산량 (A)	순수입량 (B)			자급률 (%)	1인당 공급량(kg)
				수입량	수출량		
2022	2,699	2,211	488	599	111	81.9	52.3
2021	2,493	2,072	421	542	121	83.1	48.2
평년	2,733	2,235	546	640	99	81.8	52.9
전년 대비(%)	8.3	6.7	15.9	10.5	-8.3	-1.2	8.5
평년 대비(%)	-1.2	-1.1	-10.6	-6.4	11.7	0.1	-1.2

주 1) 수출입량=배추 수출입량+김치를 배추로 환산한 수출입량, 작형별 환산계수는 봄 0.45, 여름 0.40, 가을 0.52, 겨울 0.45임. 순수입량은 수입량과 수출량의 차이를 의미함.

2) 자급률=국내 생산량/총 공급량, 자급률의 전년 및 평년 대비 증감률은 %p를 의미함.

3) 1인당 공급량=총 공급량/인구수

4) 평년은 2017~2021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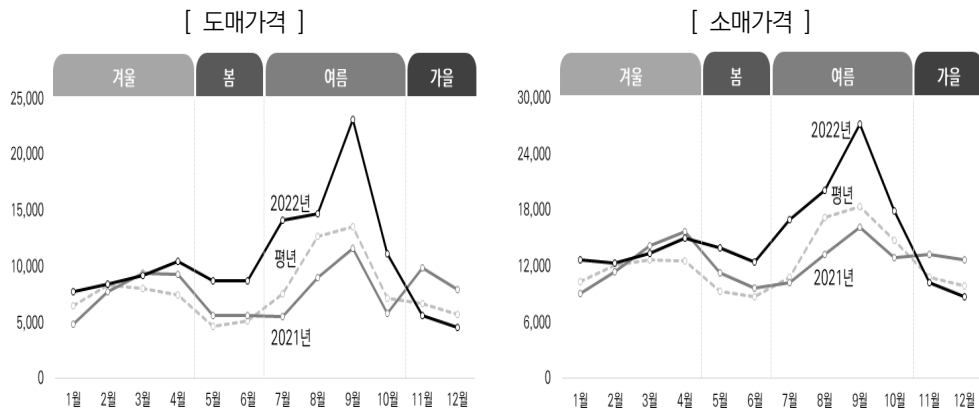
1.1.4. 가격 동향

- 2022년 배추 상품 10kg당 도매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37.3%, 40.5% 상승한 10,530원이다.
 - 봄배추(5~6월) 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55.8%, 81.1% 높은 8,700원이었다.
 - 여름배추(7~10월) 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97.5%, 55.0% 상승한 15,770원이었다. 주산지 잦은 비와 일조시간 부족으로 병해가 확산되어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2022년 봄배추 생산량이 줄면서 7~8월 저장출하 물량까지 적었다.
 - 가을배추(11~12월) 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42.8%, 19.3% 하락한 5,060원이었다. 주산지 무름병 확산으로 가을배추 작황이 부진하였던 전년 대비 재배면적과 단수가 모두 증가하였다.
 - 2022년의 경우, 가을배추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하였다. 배추를 제외한 김장재료 가격 상승,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침체로 김장 수요가 감소하여 11~12월 가격 하락폭을 확대하였다.

- 2022년 배추 상품 10kg당 소매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20.8%, 25.1% 상승한 15,040원이다.
- 도매가격 흐름과 마찬가지로 소매가격은 봄·여름배추 출하기(5~10월)에는 전년 및 평년 대비 상승하다가 가을배추 출하기(11~12월)에는 하락하였다.
- 봄배추 출하기에는 전년 대비 26.2%, 여름배추 출하기에는 5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도매가격 상승폭보다는 적었다.

그림 10-2. 월별 배추 도매 및 소매가격 동향

단위: 원/10kg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2년 김장철 가구소비자 김장 소비 행태⁴⁾

- 2022년 가정 내 김장철 김치 조달 방법은 ‘직접 담금(63.0%)’, ‘시판 김치 구매(26.3%)’, ‘지인으로부터 무료 조달(6.8%)’, ‘지인으로부터 구매(4.0%)’ 순이었다.
- 2022년 10월 김장 의향 조사(KREI, 2022)와 비교했을 때 ‘직접 담금’ 비중은 65.1%에서 2.1%p 감소하였고, ‘시판 김치 구매’는 25.7%에서 0.6%p 증가하였다.

[표 10-4] 김치 조달 비중 변화

단위: %

구분	직접 담금	시판 김치 구매	지인에게 무료 조달	지인에게 구매
2022(12월)	63.0	26.3	6.8	4.0
2022(10월)	65.1	25.7	5.0	4.3
2021	63.3	26.0	6.1	4.7

자료: 농업관측센터

- 김장재료인 배추 구매량은 전년 대비 5.3% 감소한 20.9포기였다.
- 2022년 10월 배추 구매 의향 조사와 비교 시, 21.8포기에서 0.9포기 감소하였다.
- 전년 대비 김장 포기 수가 감소한 이유로는 ‘가족 구성원과 김치 소비량이 감소해서’가 3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 내 남아있는 김치가 많아서(21.6%)’, ‘시판 김치 구매가 편리해서(14.1%)’, ‘김장 비용이 상승해서(12.4%)’ 순이었다.

[표 10-5] 배추 구매량 변화

단위: 포기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평년
12월	10월						
20.9	21.8	22.1	21.9	22.3	23.4	24.4	22.6

자료: 농업관측센터

- 식습관 변화·소비 침체 등으로 올해 김장 의향 조사 결과 대비 실제 김장 비중과 배추 구매량이 모두 감소하였다. 향후(5~10년 뒤) 가정 내 김치 조달 방법 역시 ‘직접 담금’ 비중이 2021년 대비 14.8%p 감소한 48.5%로 나타나 김장을 위한 가정 내 배추 구매량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4)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6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2022.12.20.~23.)

2022년 가구소비자 배추 소비 행태⁵⁾

- 가구소비자의 배추 구매 주기는 주로 ‘3개월(20.7%)’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배추는 부식 재료보다는 김치 원료로 주로 사용되어 주 단위 구매 비중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김치 소진 시기에 맞추어 1~3개월 내 재구입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6] 가구소비자의 배추 및 김치 구입 주기

단위: %

구분	주2회 이상	주1회	월2회 이상	월1회	2개월1회	3개월1회	6개월1회	연1회
배추	0.3	1.0	4.5	20.5	19.4	20.7	17.2	16.4
김치	-	0.3	2.8	13.6	17.4	22.2	13.6	30.1

자료: 농업관측센터

- 배추 구매 시 고려 요소로는 ‘원산지(21.9%)’, ‘모양과 선택(21.6%)’, ‘가격(18.6%)’과 ‘크기와 무게(18.6%)’ 순으로 나타났다.
 - 김치 구매 시에는 ‘가격(24.0%)’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다음으로 ‘안전성과 친환경 인증 여부(21.8%)’, ‘원산지(19.4%)’, ‘브랜드(13.6%)’ 순이었다.
 - 소비자들은 원산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비중이 70.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배추 가격 상승 시 대체 품목으로는 ‘양배추(22.2%)’, ‘쌈배추, 열갈이, 우거지 등 기타 배추류(19.1%)’, ‘무(17.8%)’ 순으로 나타났다.
 - 김치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배추김치 이외의 다른 김치류(28.9%)로 대체하거나 혹은 다른 품목으로 대체하지 않고 소비를 줄이는 것(15.2%)으로 나타났다.
- 올해 배추 소비량은 ‘전년과 비슷(59.4%)’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전년 대비 증가(14.8%)’보다는 ‘감소(25.8%)’ 비중이 조금 더 높았다.
 - 소비가 감소한 이유로는 ‘식습관의 변화(22.0%)’, ‘가족 구성원 수 감소(21.6%)’, ‘가격 상승(1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6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2022.12.20.~23.)

1.2. 수급 전망

1.2.1. 2022년산 겨울배추 생산 전망

-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출하되는 2022년산 겨울배추 생산량은 산지 작황이 좋아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5.1%, 6.6% 증가한 32만 3천 톤 내외가 될 전망이다.
 - 재배면적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5%, 11.1% 적은 3,635ha이다. 가을배추와 겨울배추 정식기(9월) 도매가격이 높아 주산지인 해남지역에서 정식시점이 조금 더 빠른 가을배추로 작형 전환이 이루어졌고, 일부는 싹배추로 전환되면서 겨울배추 면적이 감소하였다.
 - 단수는 생육기(11월~12월 중순) 기상여건⁶⁾이 좋아 전년과 평년보다 16.8%, 19.9% 증가한 10a당 8,894kg으로 전망된다.
- 2023년 봄에 출하될 2022년산 겨울배추 저장량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 결과, 겨울배추 출하기인 2022년 12월~2023년 1월 가격이 전년과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작황 양호로 저장성도 높아 입고 의향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2년산 겨울배추 저장 입고는 전년보다 5일 내외 이른 12월 상순부터 시작되었다.

[표 10-7] 2022년산 겨울배추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톤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2년산	3,635	8,894	323,270
2021년산	3,690	7,615	280,952
평년	4,090	7,417	303,364
전년 대비(%)	-1.5	16.8	15.1
평년 대비(%)	-11.1	19.9	6.6

주: 식재년도 기준이며, 평년은 2017년산~2021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6) 1월 평균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확률이 40%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파 발생 여부에 따라 추후 단수는 변동 가능(기상청, 「3개월 전망」, 2022.12.23.)

1.2.2. 2023년 생산 전망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 결과, 2023년 시설봄배추 생산량(평년 단수 적용)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3만 6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육묘 및 정식기인 2022년 12월~2023년 1월 도매가격 하락으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4.8%, 26.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향후 겨울배추 한파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봄배추 정식기(1~2월) 가격이 상승할 경우 재배면적은 변동될 수 있다.
- 2023년 노지봄배추 생산량(평년 단수 적용)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3.4%, 9.6% 증가한 26만 9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겨울배추 저장 출하량 증가로 2023년 3~5월 기대가격이 낮아 전년 대비 7.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시설봄배추와 노지봄배추를 더한 2023년 전체 봄배추 생산량은 노지봄배추 생산량 증가폭이 커 전년보다 11.8% 증가한 30만 5천 톤으로 전망된다.

[표 10-8] 2023년 봄배추(결구배추)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톤

구분	시설			노지			전체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2023	302	11,857	35,766	3,135	8,590	269,262	3,436	305,027
2022	317	11,166	35,385	3,386	7,012	237,427	3,703	272,812
평년	410	11,857	48,572	2,859	8,590	245,626	3,269	294,198
전년 대비(%)	-4.8	6.2	1.1	-7.4	22.5	13.4	-7.2	11.8
평년 대비(%)	-26.4	-	-26.4	9.6	-	9.6	5.1	3.7

주 1) 시설·노지·전체 봄배추는 기타배추를 제외한 결구배추를 의미함.

2) 2023년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임.

3) 평년은 2018~2022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KREI-KASMO 모형 추정 결과, 2023년 여름배추 생산량(평년 단수 적용)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8.3%, 8.4% 증가한 25만 3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2022년 출하기(7~10월) 도매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과 평년보다 7.6%, 8.4% 증가한 5,773ha로 추정된다.
- 2023년 가을배추 생산량(평년 단수 적용)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5.3%, 0.5% 감소한 126만 9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2022년 출하기(11~12월) 도매가격 하락으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9%, 0.5% 감소한 13,352ha로 추정된다.
- 2023년 전체 배추 생산량⁷⁾은 전년보다 0.9% 적은 219만 1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이는 평년보다는 0.7% 많은 수준이다.
 - 여름배추 재배면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면적 비중이 큰 가을배추와 봄배추 등의 면적 감소로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과 평년보다 0.2%, 1.7% 줄어든 전망이다.
 - 평년 단수를 적용할 경우 2023년 봄-여름배추 생산량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상승하였던 2022년 대비 수급 여건과 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2.3. 중장기 전망

- KREI-KASMO 모형 추정 결과, 배추 전체 재배면적은 2023년 30,006ha에서 2032년 27,621ha로 연평균 0.8% 감소할 전망이다.
 - 중장기적으로 모든 작형에서 재배면적 감소가 예상되며, 양배추 등 대체 품목 증가와 김장수요 감소,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배추 수요 감소가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 국내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연평균 0.8% 감소하여 2032년 202만 톤 내외가 전망된다.
- 배추 총 공급량은 2023년 259만 8천 톤에서 2032년 253만 4천 톤으로 연평균 0.2% 감소할 전망이다.
 - 수입량이 증가하나 국내 생산량 감소폭이 커 공급량은 감소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7) 2023년산 겨울배추 생산량이 포함된 수치이며, 2023년산 겨울배추는 2024년에 출하되어 2023년 생산 전망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음.

- 배추 자급률은 국내 생산량 감소와 수입량 증가에 따라 2023년 84.3%에서 2032년 79.8%로 하락할 전망이다. 또한 총 공급량 감소로 배추 1인당 공급량은 2023년 50.4kg에서 2032년 49.6kg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 10-9] 배추 중장기 수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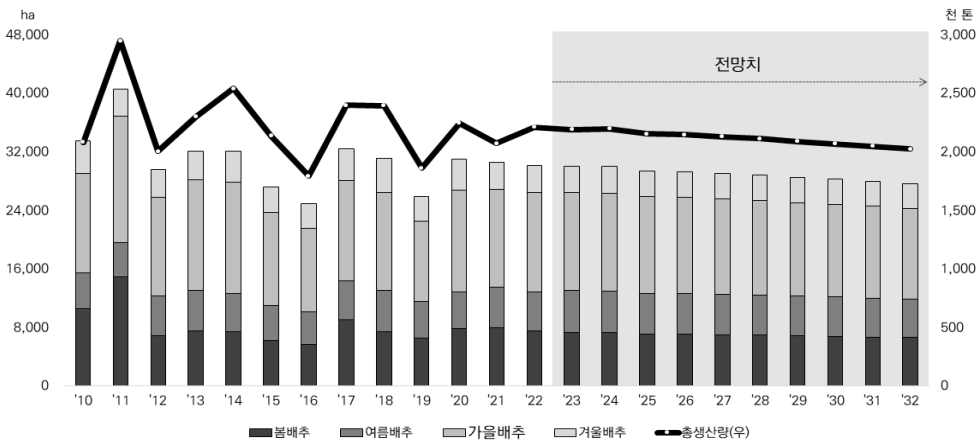
구분	단위	2022	2023	2027	2032
재배면적	ha	30,080	30,006	29,068	27,621
총 공급량(A=B+C)	천 톤	2,699	2,598	2,574	2,534
국내 생산량(B)	천 톤	2,211	2,191	2,130	2,024
순수입량(C=D-E)	천 톤	488	407	445	511
수입량(D)	천 톤	599	519	572	648
수출량(E)	천 톤	111	112	128	137
자급률(B/A)	%	81.9	84.3	82.7	79.8
1인당 공급량	kg	52.3	50.4	50.1	49.6

주 1) 수출입량=배추 수출입량+김치를 배추로 환산한 수출입량, 작형별 환산계수는 봄 0.45, 여름 0.40, 가을 0.52, 겨울 0.45임.

2) 1인당 공급량=총 공급량/인구수

자료: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그림 10-3. 배추 재배면적 및 생산량 중장기 전망



자료: 통계청, 전라남도청,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02

무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1. 수급 동향

2.1.1. 생산 동향

- 2022년 무 재배면적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0.5%, 4.3% 감소한 2만 179ha이다. 가을 무 재배면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봄·여름·겨울무 재배면적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 봄무 재배면적은 전년도 출하기(5~7월) 도매가격이 크게 낮아 재배의향이 위축되면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2.1%, 12.1% 감소한 5,578ha이다.
 - 여름무 재배면적은 전년도 출하기(8~10월) 도매가격이 낮아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4.3%, 6.0% 감소한 2,650ha이며, 감소한 재배면적은 대파, 양상추, 약용작물 등으로 대체되었다.
 - 가을무 재배면적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7.1%, 10.2% 증가한 6,340ha이다. 김장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가을일반무 파종기(8~9월) 도매가격이 높았고, 최대 주산지인 호남지역 파종기 기상 여건이 좋아 재배면적이 증가하였다.
 - 겨울무 재배면적은 연작피해 우려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4.7%, 8.9% 감소한 5,611ha이며, 비트, 더덕, 콩 등으로 작목 전환되었다.
- 2022년 무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2.9%, 3.6% 감소한 113만 8천 톤으로 추정된다.
 - 봄무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더불어 생육기(5~6월) 가뭄과 출하기(7월) 집중호우로 병해가 발생하면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4.8%, 13.6% 감소한 22만 톤이었다.

- 여름무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생육기(7~9월) 집중호우로 단수도 감소하여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23.0%, 14.6% 감소한 8만 8천 톤이었다.
- 가을무 생산량은 생육기(8~10월) 가뭄으로 단수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재배면적 증가 영향으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6.5%, 7.2% 증가한 46만 4천 톤이었다.
- 겨울무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 영향으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6.5%, 6.2% 감소한 36만 7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표 10-10] 무 작형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 천 톤

구분		2022	2021	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전체	면적	20,179	20,272	21,083	-0.5	-4.3
	생산량	1,138	1,172	1,181	-2.9	-3.6
봄	면적	5,578	5,696	6,347	-2.1	-12.1
	생산량	220	231	255	-4.8	-13.6
여름	면적	2,650	2,769	2,820	-4.3	-6.0
	생산량	88	114	103	-23.0	-14.6
가을	면적	6,340	5,919	5,755	7.1	10.2
	생산량	464	436	433	6.5	7.2
겨울	면적	5,611	5,888	6,161	-4.7	-8.9
	생산량	367	392	391	-6.5	-6.2

주 1) 봄무는 일반무와 기타무를 모두 포함하며, 가을무는 일반무와 총각무를 모두 포함함.

2) 2022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임.

3) 평년은 2017~2021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2.1.2. 수출입 동향

- 2022년 무 수출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22.5%, 19.8% 감소한 3,443톤이며, 국내 무 전체 생산량의 0.3% 수준에 불과하다. 무 수출이 주로 진행되는 겨울철(1~2월) 기상여건 악화로 수출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 작형별로는 겨울무(1~5월) 수출량이 1,963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57.0%를 차지하였다. 국가별 수출 비중은 미국이 69.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캐나다(12.8%), 홍콩(6.0%) 순이다.
- 2022년 무 수입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72.1%, 39.0% 감소한 2,143톤이다. 수입이 주로 진행되는 겨울철(1~5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의 수입 및 이동 제한 영향으로 수입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 작형별로는 겨울무(1~5월) 수입량은 1,394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65.0%를 차지하였고, 여름무(8~10월) 수입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증가한 529톤이었다.
 - 무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며 주 수입 시기는 겨울무 출하기(1~5월)이나, 2022년은 여름철 무 도매가격이 높아 여름무 출하기(8~10월) 수입 비중이 전년(2.9%)과 평년(8.5%)보다 높은 24.6%였다.

[표 10-11] 무 수출입 동향

단위: 톤

구분	수출					수입				
	겨울 (1~5월)	봄 (6~7월)	여름 (8~10월)	가을 (11~12월)	계	겨울 (1~5월)	봄 (6~7월)	여름 (8~10월)	가을 (11~12월)	계
2022	1,963	146	50	1,284	3,443	1,394	-	529	220	2,143
2021	3,344	228	153	720	4,445	6,561	58	222	852	7,694
평년	2,613	195	103	1,383	4,295	2,178	49	299	990	3,516
전년 대비(%)	-41.3	-35.7	-67.6	78.3	-22.5	-78.8	-	138.2	-74.1	-72.1
평년 대비(%)	-24.9	-24.8	-52.2	-7.2	-19.8	-36.0	-	76.7	-77.7	-39.0

주 1) 무(신선, 냉장) HS코드 0706901000의 실적임.

2) 평년은 2017~2021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관세청

2.1.3. 공급 동향

- 2022년 무 총 공급량은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여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3.3%, 3.7% 감소한 113만 7천 톤이며, 자급률은 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인당 공급량은 무 공급량이 줄어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3.1%, 3.5% 감소한 22.0kg이다.

[표 10-12] 무 공급 동향

단위: 천 톤

구분	총 공급량 (A+B-C)	국내 생산량 (A)	수입량 (B)	수출량 (C)	자급률 (%)	1인당 공급량(kg)
2022	1,137	1,138	2.1	3.4	100.1	22.0
2021	1,176	1,172	7.7	4.4	99.7	22.7
평년	1,180	1,181	3.5	4.3	100.1	22.8
전년 대비(%)	-3.3	-2.9	-72.1	-22.5	0.4	-3.1
평년 대비(%)	-3.7	-3.6	-39.0	-19.8	-	-3.5

주 1) 자급률=국내 생산량/총 공급량, 자급률의 전년 및 평년 대비 증감률은 %p를 의미함.

2) 1인당 공급량=총 공급량/인구수

3) 평년은 2017~2021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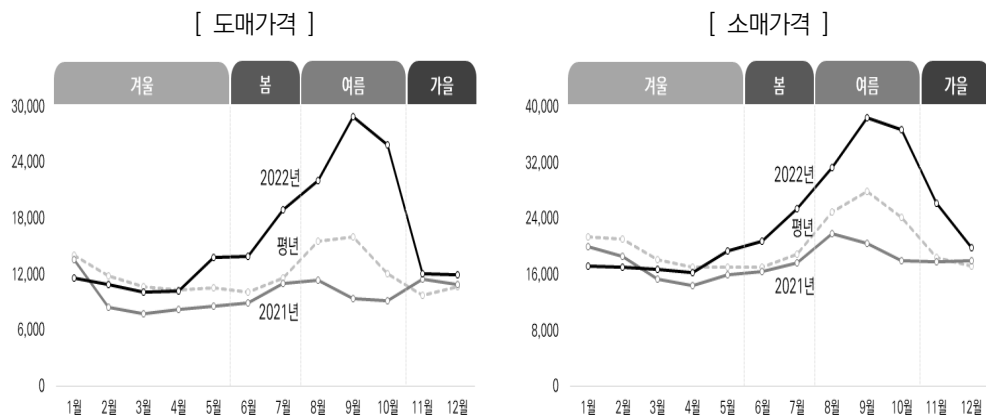
2.1.4. 가격 동향

- 2022년 무 상품 20kg당 도매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60.0%, 32.9% 상승한 15,820원이다.
 - 봄무(6~7월) 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64.2%, 51.2% 상승한 16,360원이었다. 주산지(경기·충청지역) 병해 확산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가격 상승의 요인이었다.
 - 여름무(8~10월) 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57.2%, 76.3% 상승한 25,560원이었다. 여름무 출하기(8~10월) 기상 악화로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가공공장(김치, 치킨 무 등) 재고량도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 가을무(11~12월) 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7.1%, 18.1% 높은 12,020원이었다. 가을무 출하 초기(11월) 가뭄으로 인해 생육이 지연되었고, 12월 이른 한파로 인한 출하 작업 여건 악화로 가격이 상승하였다.

- 2022년 무 상품 20kg당 소매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33.4%, 17.2% 상승한 23,740 원이었다.

그림 10-4. 월별 무 도매 및 소매가격 동향

단위: 원/20kg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22년(6~12월) 가락시장 무 반입량은 평년 대비 7.5% 많은 12만 톤이었다.
 - 봄무 출하기(6~7월) 가락시장 반입량은 평년 대비 1.5%, 여름무는 11.0%, 가을무는 7.2% 증가하였다. 여름·가을무 반입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이유는 출하기 무 가격이 높아 산지 직거래보다 시장 출하가 선호되었기 때문이다.

[표 10-13] 도매시장 무 반입량 동향

단위: 톤

구분		봄(6~7월)	여름(8~10월)	가을(11~12월)	계
가락시장	2022	24,711	52,465	43,021	120,197
	평년	24,352	47,271	40,145	111,768
	평년 대비(%)	1.5	11.0	7.2	7.5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2022년 가구소비자 무 소비 행태⁸⁾

- 가구소비자의 경우 무는 주로 ‘월 1회(35.0%)’ 또는 ‘월 2회 이상(24.7%)’ 주기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무는 부식 재료로 주로 사용되어 구매 주기가 다른 품목에 비해 빠른 것으로 판단된다. 구매 시 구매 단위는 ‘1개’ 비중이 63.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무 구매 시 고려 요소로는 ‘모양과 선택(29.3%)’, ‘크기와 무게(21.5%)’, ‘원산지(17.3%)’ 순이었다.
 - 포장 형태와 브랜드에 대한 사항은 구매 고려 요소로서 선호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다.

[표 10-14] 가구소비자의 무 구매 고려 요소

단위: %

구분	가격	모양과 선택	크고 무게	작고 가벼움	안전성 및 친환경	원산지	포장 형태	브랜드
무	14.4	29.3	21.5	2.9	9.8	17.3	4.8	-

자료: 농업관측센터

- 무 가격 상승 시 대체 품목으로는 ‘배추(16.2%)’, ‘대체 없음(13.2%)’, ‘양파(12.4%)’ 순으로 나타났다.
- 작년 대비 무 소비량은 ‘비슷(66.4%)’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증가(16.7%)’보다는 ‘감소(18.9%)’ 비중이 조금 더 높았다.
 - 소비가 감소한 이유로는 ‘가족 구성원 수 감소(24.0%)’, ‘식습관의 변화(20.3%)’, ‘외식 증가(15.1%)’ 등의 순이었다.

8)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6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2022.12.20.~23.)

2.2. 수급 전망

2.2.1. 2022년산 겨울무 생산 전망

- 2023년 1분기에 출하되는 2022년산 겨울무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6.5%, 6.2% 감소한 36만 7천 톤으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4.7%, 8.9% 감소한 5,611ha이다. 연작 피해 우려로 비트, 콩 등으로 작목 전환되어 면적이 감소하였다.
 - 단수는 전년 대비 1.9% 감소한 10a당 6,538kg으로 전망된다. 8월 파종분은 그물망 작업 등이 진행되면서 태풍 피해가 미미하였으나, 9월 파종분은 생육기(10~11월) 가뭄으로 발아율이 감소하였고, 12월 한파와 폭설로 생육도 지연되었다. 그러나 평년과 비교할 경우에는 3.0% 증가한 수준이다.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 결과, 2022년산 겨울무 저장 입고 의향은 전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중순~10월 상순 파종 비중(65.6%)이 늘면서 주 출하 시기인 2023년 2~4월 가격 하락을 우려하여 저장 입고 의향이 증가하였다.
 - 겨울무 저장 입고는 2021년산 대비 다소 이른 2월 하순부터 시작되며, 겨울 저장무 주 출하시기는 2023년 4~6월로 조사되었다.

[표 10-15] 2022년산 겨울무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톤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2년산	5,611	6,538	366,838
2021년산	5,888	6,662	392,278
평년	6,161	6,348	391,052
전년 대비(%)	-4.7	-1.9	-6.5
평년 대비(%)	-8.9	3.0	-6.2

주: 식재년도 기준이며, 평년은 2017년산~2021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2.2.2. 2023년 전망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 결과, 평년 단수를 적용한 2023년 시설봄무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5.4%, 20.5% 감소한 1만 7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2022년산 겨울무 저장 의향이 증가하고, 생산비도 상승하여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5.1%, 20.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향후 겨울무 한파 피해 등으로 인해 생산량 감소할 경우 재배면적은 변동될 수 있다.
- 2023년 노지봄무 생산량(평년 단수 적용)은 전년 대비 3.8% 증가, 평년 대비 4.5% 감소한 9만 1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시설봄무와 마찬가지로 2022년산 겨울무 저장 의향 증가로 출하기 가격 하락 우려되어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4%, 4.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단수는 노지봄무 생육기(5~6월) 가뭄과 출하기(7월) 집중호우로 생리장애와 병해가 심했던 전년보다는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시설봄무와 노지봄무를 포함한 2023년 전체 봄무(일반무) 생산량은 노지봄무 생산량이 증가하나 시설봄무 재배면적이 줄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봄무는 겨울무 출하 가능 기간이 늘어나면서 재배면적이 감소 추세에 있다.

[표 10-16] 2023년 봄무(일반무)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톤

구분	시설			노지			전체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2023	135	12,370	16,712	776	11,659	90,503	911	107,215
2022	142	12,411	17,667	787	11,078	87,155	929	107,084
평년	170	12,370	21,014	813	11,659	94,752	983	115,766
전년 대비(%)	-5.1	-0.3	-5.4	-1.4	5.2	3.8	-1.9	0.1
평년 대비(%)	-20.5	-	-20.5	-4.5	-	-4.5	-7.2	-7.4

주 1) 시설노지-전체 봄무는 기타무를 제외한 일반무를 의미함.

2) 2023년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임.

3) 평년은 2018~2022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KREI-KASMO 추정 결과, 2023년 여름무 생산량(평년 단수 적용)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6.7%, 3.3% 증가한 10만 2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전년 출하기(7~10월) 높은 가격 영향으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6.1%, 2.7% 증가한 2,811ha로 추정된다.
- 2023년 가을무 생산량(평년 단수 적용)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6%, 8.3% 증가한 47만 1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2023년 여름무 재배면적 증가 영향으로 가을무 파종기(8~9월) 기대가격이 낮아 전년 대비 1.4% 감소, 평년 대비 8.0% 증가한 6,251ha로 추정된다.
- 2023년 전체 무 생산량⁹⁾은 전년 대비 1.3% 증가, 평년 대비 0.9% 감소한 115만 2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 무 재배면적은 여름무를 제외한 다른 작형에서 면적이 줄어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0.7%, 1.9% 감소한 2만 33ha로 추정된다.

2.2.3. 중장기 전망

- KREI-KASMO 모형 추정 결과, 무 재배면적은 2023년 2만 33ha에서 2032년 1만 8,978ha로 연평균 0.5% 감소할 전망이다.
 - 식습관 변화와 김장 수요 감소, 겨울무 공급 과잉에 따른 산지 면적 조절 등이 재배면적 감소 요인으로 판단된다.
- 무 총 공급량은 2023년 115만 2천 톤에서 2032년 109만 8천 톤으로 연평균 0.5% 감소할 전망이다.
 - 무 생산성 향상에 따른 단수 변화는 크지 않으나 재배면적 감소 영향으로 공급량은 감소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 무 수입량과 수출량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9) 2023년산 겨울무 생산량이 포함된 수치이며, 2023년산 겨울무는 2024년에 출하되어 2023년 생산 전망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음.

- 무 자급률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1인당 공급량은 총 공급량 감소에 따라 2023년 23.2kg에서 2032년 22.5kg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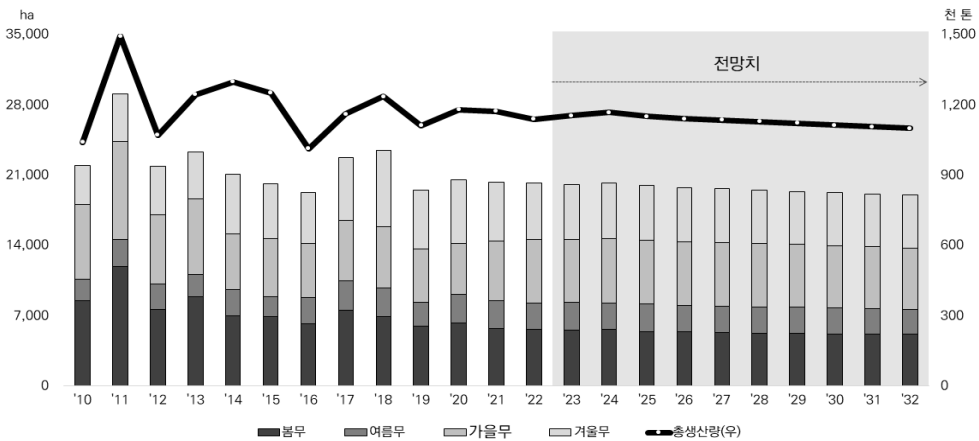
[표 10-17] 무 중장기 수급 전망

구분	단위	2022	2023	2027	2032
재배면적	ha	20,179	20,033	19,612	18,978
총 공급량(A=B+C)	천 톤	1,137	1,152	1,135	1,098
국내 생산량(B)	천 톤	1,138	1,152	1,135	1,098
순수입량(C=D-E)	천 톤	-1.3	-	-0.1	-0.5
수입량(D)	천 톤	2.1	2.4	2.4	2.4
수출량(E)	천 톤	3.4	2.4	2.5	2.9
자급률(B/A)	%	100.1	100.0	100.0	100.0
1인당 공급량	kg	22.0	23.2	23.0	22.5

주: 1인당 공급량=총 공급량/인구수

자료: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그림 10-5. 무 재배면적 및 생산량 중장기 전망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03

당근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3.1. 수급 동향

3.1.1. 생산 동향

- 2022년 당근 재배면적은 전년도 출하기 도매가격 하락으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5.9%, 12.7% 감소한 2,345ha이다.
 - 작형별 재배 비중은 봄당근이 41.2%(평년 33.8%)로 가장 높았고, 겨울당근 34.8%(48.2%), 여름당근 17.0% (10.2%), 가을당근 7.0%(7.7%) 순이다.
 - 태풍 피해로 2022년산 겨울당근 재배면적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봄당근의 재배 비중이 겨울당근보다 증가하였고, 여름당근은 수확기 높은 가격으로 매년 재배면적이 늘어 전체적인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 출하 가능 시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을당근은 재배면적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감소한 가을 및 겨울당근은 무와 콩 등으로 작목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8] 2022년 당근 작형별 재배면적 증감 및 대체작목 전환 관계

구분			재배비중(%)		재배면적 증감 (평년 대비)	대체작목 전환 관계
			2022	평년		
봄	시설	경남, 부산	41.2	33.8	증가	감자, 양배추 → 당근
	노지	경북, 경남			증가	감자 → 당근
여름		강원	17.0	10.2	증가	감자, 약용작물 → 당근
가을		충북, 경북, 경남	7.0	7.7	감소	당근 → 애호박, 가공용 무, 콩
겨울		제주	34.8	48.2	감소	당근 → 무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농업관측센터

- 2022년 당근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28.3%, 22.7% 감소한 7만 1천 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의 영향이 큰데, 겨울당근의 생산량이 전년과 평년 대비 40% 내외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 봄당근은 생육 초기 저온과 가뭄으로, 여름당근은 잦은 비로 작황이 부진하였고, 가을당근은 재배면적이 줄어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 겨울당근은 태풍(힌남노)으로 인한 피해로 재파종이 불가능한 폐작 면적이 발생하면서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32.4% 감소하였고, 태풍 이후 지속된 가뭄으로 단수도 줄면서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0-19] 당근 작형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 천 톤

구분		2022	2021	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전체	면적	2,345	2,786	2,687	-15.9	-12.7
	생산량	71	99	92	-28.3	-22.7
봄	면적	967	1,002	909	-3.5	6.4
	생산량	28	33	29	-15.4	-4.5
여름	면적	399	409	275	-2.5	45.1
	생산량	7	9	7	-29.5	-0.6
가을	면적	164	169	208	-3.2	-21.2
	생산량	6	6	7	-0.5	-12.2
겨울	면적	815	1,206	1,295	-32.4	-37.1
	생산량	30	50	49	-39.8	-38.0

주 1) 2022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임.

2) 평년은 2017~2021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농업관측센터

3.1.2. 수출입 동향

- 당근 수입량은 등락이 있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까지 10만 톤을 상회하던 수입량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다소 위축된 상황이다.
- 2022년 당근 수입량은 9만 6,244톤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다. 2022년 국내 당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국내산 당근을 사용하던 외식업체의 일부 수요가 수입산으로 대체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중국 산동성의 당근 생산량도 늘었기 때문이다. 평년 수입량과 비교하면 다소 적은 수준이다.
 - 국가별 수입량은 주수입국인 중국(연중 수입)이 8만 8,593톤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고 베트남(1~5월 수입)은 동기간 4.7% 증가한 7,651톤이었다.
 - 국가별 비중은 중국이 90%, 베트남이 10%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 2022년 톤당 당근 수입단가는 470달러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4%, 12.6% 상승하였다.
 - 국가별 수입단가는 중국산이 462달러로 전년 대비 1.8% 높았고, 베트남산은 564달러로 전년 대비 1.5% 낮은 수준이었다.
- 2022년 10kg당 당근 국내 판매 가능 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3.6%, 25.5% 상승한 8,700원이었다.
 - 국가별로 중국산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3.9%, 25.7% 상승한 8,500원, 무관세로 수입되는 베트남산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0.4%, 26.6% 상승한 8,000원이었다.

[표 10-20] 당근 수출입 동향

단위: 톤

구분	수출	수입			
	전체	중국	베트남	기타	전체
2022	215	88,593	7,651	-	96,244
2021	235	84,341	7,310	70	91,720
평년	197	94,236	5,935	69	101,225
전년 대비(%)	-8.8	5.0	4.7	-	4.9
평년 대비(%)	9.0	-6.0	28.9	-	-4.9

주 1) 당근(신선, 냉장) HS코드 0706101000의 실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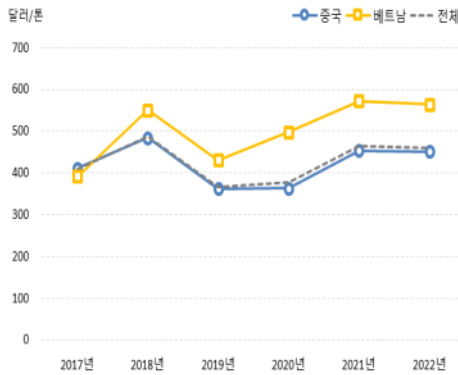
2) 기타 수출입국은 북마리아나 군도, 대만, 미얀마, 몽골, 홍콩, 러시아, 일본 외 20개 국가임.

3) 평년은 2017~2021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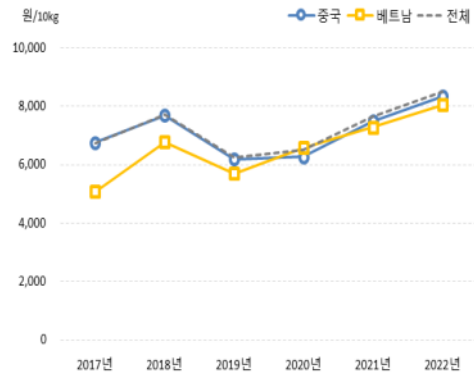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그림 10-6. 당근 국가별 수입단가 및 국내 판매 가능 가격 추이

[수입단가]



[국내 판매 가능 가격]



자료: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3.1.3. 공급 동향

- 2022년 당근 총 공급량은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여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2.3%, 12.4% 적은 16만 7천 톤으로 추정된다. 자급률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9.5%p, 4.9%p 감소한 42.4%, 1인당 공급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2.1%, 12.2% 감소한 3.2kg으로 전망된다.

[표 10-21] 당근 공급 동향

단위: 천 톤

구분	총 공급량 (A+B)	국내 생산량 (A)	순수입량 (B)	자급률 (%)	1인당 공급량(kg)
2022	167	71	96	42.4	3.2
2021	190	99	91	51.9	3.7
평년	190	90	101	47.3	3.7
전년 대비(%)	-12.3	-28.3	5.0	-9.5	-12.1
평년 대비(%)	-12.4	-21.6	-4.6	-4.9	-12.2

주 1) 순수입량은 수입량과 수출량의 차이를 의미함.

2) 자급률=국내 생산량/총 공급량, 자급률의 전년 및 평년 대비 증감률은 %p를 의미함.

3) 1인당 공급량=총 공급량/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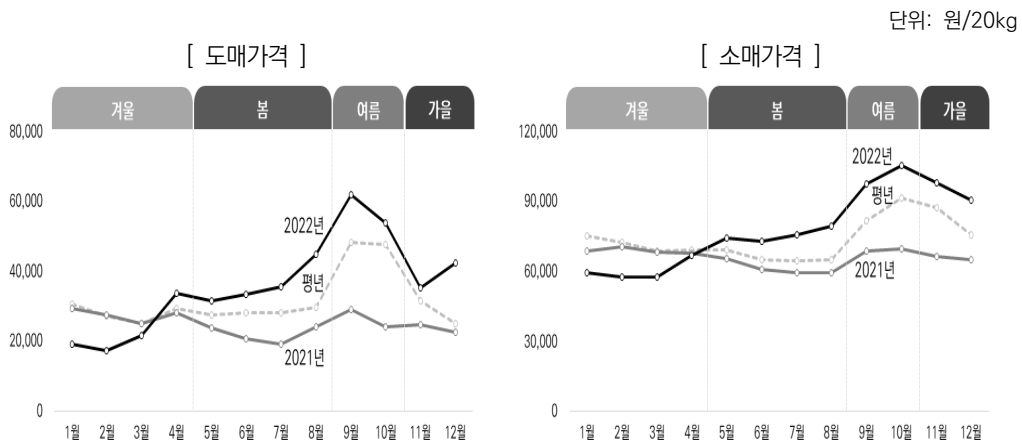
4) 평년은 2017~2021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3.1.4. 가격 동향

- 2022년 당근 상품 20kg당 도매가격은 생산량이 줄어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44.7%, 10.4% 상승한 35,830원이었다.
 - 봄·여름당근은 기상 여건이 악화되어 작황이 부진하였고, 가을·겨울당근은 재배 면적 감소로 출하량이 줄어 가격이 상승하였다.
- 2022년 당근 소매가격도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8.4%, 4.6% 상승한 77,840원에서 형성되었다.

그림 10-7. 월별 당근 도매 및 소매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22년(5~12월) 가락시장 당근 반입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8.9%, 5.1% 감소한 1만 6천 톤이었다.
 - 봄당근 반입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4.5%, 1.8% 감소하였고, 여름당근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22.9%, 8.7% 감소하였다.
 - 가을당근 주 출하 시기인 11~12월 반입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23.5%, 8.3% 감소하였다.
- 2022년(5~12월) 전국 도매시장 당근 반입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26.9%, 23.9% 감소한 2만 5천 톤이었다.

[표 10-22] 도매시장 당근 반입량 동향

단위: 톤

구분		봄(5~8월)	여름(9~10월)	가을(11~12월)	계
가락시장	2022	8,267	3,890	3,759	15,916
	2021	9,672	5,047	4,916	19,635
	평년	8,416	4,263	4,099	16,777
	전년 대비(%)	-14.5	-22.9	-23.5	-18.9
	평년 대비(%)	-1.8	-8.7	-8.3	-5.1
전국 도매시장	2022	14,669	5,118	5,260	25,047
	2021	15,766	8,780	9,737	34,283
	평년	15,919	7,971	9,037	32,928
	전년 대비(%)	-7.0	-41.7	-46.0	-26.9
	평년 대비(%)	-7.9	-35.8	-41.8	-23.9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농업관측센터

2022년 가구소비자 당근 소비 행태¹⁰⁾

- 가구소비자의 당근 구입 주기는 ‘월 1회(35.7%)’와 ‘월 2회 이상(31.9%)’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 당근 구매처는 ‘재래시장(29.0%)’, ‘대형마트(27.7%)’, ‘인근 소매점(24.5%)’ 위주로 구입하고 있으며, 회당 구입량은 ‘1~3개(69.3%)’가 가장 많았다.

[표 10-23] 가구소비자의 당근 구입 주기

단위: %

구분	주2회 이상	주1회	월2회 이상	월1회	2개월1회	3개월1회	6개월1회	연1회
당근	1.3	10.1	31.9	35.7	9.5	6.5	3.3	1.8

자료: 농업관측센터

- 당근 구매 시 고려 요소로는 ‘모양과 선택(35.5%)’, ‘원산지(19.0%)’, ‘가격(13.6%)’ 순이었다.
- 원산지를 확인하는 소비자들은 대부분 ‘국산 당근을 구입(94.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당근 가격이 상승할 경우 대체품목은 ‘양파(15.2%)’, ‘오이(11.4%)’, ‘무(10.9%)’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당근 소비 자체를 줄이는 비중도 15.1%로 분석되었다.
- 전년 대비 당근 소비량은 ‘비슷(70.3%)’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증가(12.8%)’보다는 ‘감소(16.9%)’ 비중이 조금 더 높았다.
- 소비 감소의 이유는 ‘식습관의 변화(27.5%)’, ‘가족 구성원 수 감소(22.5%)’, ‘외식 증가(1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소비 증가의 이유는 ‘식습관의 변화(33.8%)’, ‘건강에 좋아서(31.7%)’, ‘외식 감소(15.2%)’ 등의 순이었다.

10)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6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2022.12.20.~23.)

3.2. 수급 전망

3.2.1. 2022년산 겨울당근 생산 전망

- 2022년산 겨울당근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39.8%, 38.0% 감소한 3만 톤으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32.4%, 37.1% 감소한 815ha이다. 초기 파종면적은 전년과 비슷하였으나, 태풍 힌남노 피해로 폐작 면적이 늘어났다.
 - 단수 역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0.9%, 1.5% 감소한 10a당 3,726kg으로 전망된다. 7월에 파종한 당근의 작황은 좋으나, 8월 이후 파종하여 태풍 피해를 받았거나 태풍 이후 재파종한 당근은 10월 가뭄으로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표 10-24] 2022년산 겨울당근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톤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2년산	815	3,726	30,362
2021년산	1,206	4,182	50,435
평년	1,295	3,781	48,981
전년 대비(%)	-32.4	-10.9	-39.8
평년 대비(%)	-37.1	-1.5	-38.0

주: 식재년도 기준이며, 평년은 2017년산~2021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청, 농업관측센터

3.2.2. 2023년 전망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 결과, 2023년 봄당근 생산량(평년 단수 적용)은 전년 대비 2.1% 증가, 평년 대비 1.3% 감소한 2만 8천 톤으로 전망된다. 주 출하기인 5~8월 가격은 평년 대비 높을 전망이다.
 - 봄당근 재배면적은 수익성 악화와 작목 전환으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4.1%, 1.3% 감소한 927ha로 전망된다.

- 재배 형태별로 시설봄당근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3.9%, 1.0% 감소한 776ha, 노지 봄당근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5.2%, 2.4% 감소 감소한 151ha로 전망된다.

[표 10-25] 2023년 봄당근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톤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3	927	3,043	28,214
2022	967	2,858	27,640
평년	939	3,043	28,574
전년 대비(%)	-4.1	6.5	2.1
평년 대비(%)	-1.3	-	-1.3

주 1) 2023년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임.

2) 평년은 2018~2022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KREI-KASMO 모형 추정 결과, 2023년 여름당근 생산량(평년 단수 적용)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40.4%, 25.8% 증가한 9천 톤으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전년 출하기(9~10월) 가격이 높아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1.3%, 25.8% 증가한 444ha로 전망된다.
- 2023년 가을당근 생산량(평년 단수 적용)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4.3%, 11.9% 감소한 6천 톤으로 전망된다.
 - 가을당근 재배면적도 전년도 여름당근부터 이어진 높은 가격 영향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한 168ha로 전망된다. 평년보다는 11.9% 감소한 수준이다.
- 2023년 전체 당근 생산량¹¹⁾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32.6%, 7.4% 증가한 9만 3천 톤으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21.8%, 6.5% 증가한 2,856ha로 전망된다.
 - 기상여건 악화로 면적과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던 2022년의 기저효과로 2023년 당근 생산량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1) 2023년산 겨울당근 생산량이 포함된 수치이며, 2023년산 겨울당근은 2024년에 출하되어 2023년 생산 전망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음.

3.2.3. 중장기 전망

- KREI-KASMO 모형 추정 결과, 당근 재배면적은 면적 비중이 큰 겨울당근의 공급 과잉에 따른 산지 면적 조절과 외식소비 증가에 따른 국산 당근 수요 감소(수입산은 증가)로 2023년 2,856ha에서 2032년 2,642ha로 연평균 0.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당근 총 공급량은 국내 생산량 감소로 2023년 19만 3천 톤에서 2032년 19만 1천 톤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국내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 영향으로 2023년 9만 3천 톤에서 2032년 8만 6천 톤으로 감소하나, 순수입량은 2023년 10만 톤에서 2032년 10만 5천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당근 자급률은 2023년 48.0%에서 2032년 44.9%로 낮아질 전망이며, 1인당 공급량은 3.7kg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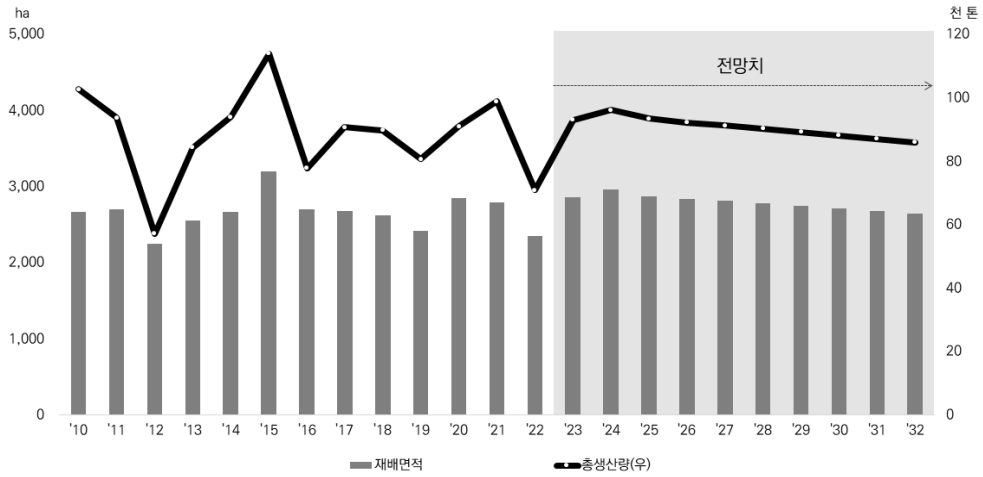
[표 10-26] 당근 중장기 수급 전망

구분	단위	2022	2023	2027	2032
재배면적	ha	2,345	2,856	2,806	2,642
총 공급량(A=B+C)	천 톤	167	193	193	191
국내 생산량(B)	천 톤	71	93	91	86
순수입량(C=D-E)	천 톤	96	100	102	105
수입량(D)	천 톤	96	101	102	105
수출량(E)	천 톤	0.2	0.2	0.2	0.2
자급률(B/A)	%	42.4	48.0	47.2	44.9
1인당 공급량	kg	3.2	3.8	3.8	3.7

주: 1인당 공급량=총 공급량/인구수

자료: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그림 10-8. 당근 재배면적 및 생산량 중장기 전망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4.1. 수급 동향

4.1.1. 생산 동향

- 2022년 양배추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7,550ha이다. 전년 양배추 도매가격이 하락하여 재배면적이 감소하였다. 식습관 서구화의 영향으로 양배추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재배면적 역시 증가 추세이다. 2022년 재배면적을 평년과 비교하면 11.5% 증가한 수준이다.
 - 봄양배추 재배면적은 겨울양배추 출하량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한 1,696ha이다.
 - 여름양배추 재배면적도 전년도 도매가격 하락 영향이 있었으나, 연작피해를 우려한 배추 농가들이 양배추로 작목을 전환하면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 가을양배추 재배면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한 711ha이다.
 - 겨울양배추 재배면적은 출하기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정식기(9월 상순) 태풍 영향으로 폐작 면적이 발생하면서 최종면적은 전년보다 2.7% 감소한 3,259ha로 추정된다.
- 2022년 작형별 재배 비중은 겨울양배추가 43.2%(평년 43.6%)로 가장 높았고, 여름양배추 25.0%(23.1%), 봄양배추 22.5%(23.3%), 가을양배추 9.4%(10.0%) 순이었다.

[표 10-27] 2022년 양배추 작형별 재배면적 증감 및 대체작목 전환 관계

구분			재배비중(%)		재배면적 증감 (평년 대비)	대체작목 전환 관계
			2022	평년		
봄	시설	경남, 대구시	22.5	23.3	증가	양파 → 양배추
	노지	전남, 충남			증가	생강 → 양배추
여름	강원, 경북		25.0	23.1	증가	배추 → 양배추
가을	충남, 전남		9.4	10.0	증가	양파 → 양배추
겨울	제주, 전남		43.2	43.6	증가	브로콜리 → 양배추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농업관측센터

- 2022년 양배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3.9% 감소한 37만 1천 톤으로 추정된다.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기상 악화에 따라 단수도 줄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소비자 수요 증가로 평년보다는 13.0% 많은 수준이다.
 - 봄양배추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7.1%, 3.1% 감소한 7만 2천 톤이다.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생육기(2월, 4월) 기상여건 악화로 작황도 부진했다.
 - 여름양배추 생산량은 전년 대비 8.4% 감소한 7만 8천 톤이다. 재배면적이 전년과 비슷하였지만, 생육기 고온과 집중호우, 일조시간 부족으로 구 비대가 원활하지 못했다.
 - 가을양배추 생산량 역시 기상 여건 악화로 전년보다 8.2% 감소한 3만 톤이다.
 - 겨울양배추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9만 2천 톤으로 추정된다. 다른 작형과 마찬가지로 재배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생육기(11월) 기상이 좋아 단수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생산량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표 10-28] 양배추 작형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 천 톤

구분		2022	2021	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전체	면적	7,550	7,724	6,772	-2.3	11.5
	생산량	371	387	329	-3.9	13.0
봄	면적	1,696	1,745	1,579	-2.8	7.4
	생산량	72	77	74	-7.1	-3.1
여름	면적	1,884	1,882	1,566	0.1	20.3
	생산량	78	85	70	-8.4	11.0
가을	면적	711	748	677	-4.9	5.1
	생산량	30	33	32	-8.2	-4.3
겨울	면적	3,259	3,350	2,951	-2.7	10.4
	생산량	192	192	153	-0.2	25.3

주 1) 2022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임.

2) 평년은 2017~2021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농업관측센터

4.1.2. 수출입 동향

- 양배추 수출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감소한 2,656톤이었다. 2022년 양배추 도매가격이 높아 수출보다는 국내시장으로 출하가 많이 되었다.
- 양배추 수입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감소한 4,334톤이었다. 양배추의 경우 99%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되는데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양배추 수입업체의 중국 입국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표 10-29] 양배추 수출입 동향

단위: 톤

구분	수출					수입				
	겨울 (1~4월)	봄 (5~7월)	여름 (8~10월)	가을 (11~12월)	계	겨울 (1~4월)	봄 (5~7월)	여름 (8~10월)	가을 (11~12월)	계
2022	186	1,864	460	147	2,656	710	1,070	1,837	718	4,334
2021	79	1,750	4,274	292	6,395	1,943	1,041	1,122	345	4,450
평년	676	4,194	3,214	260	6,822	4,509	940	3,176	2,594	11,220
전년 대비(%)	135.4	6.5	-89.2	-49.7	-58.5	-63.5	2.8	63.7	108.1	-2.5
평년 대비(%)	-72.5	-55.6	-85.7	-43.5	-61.1	-84.3	13.8	-42.2	-72.3	-61.4

주 1) 양배추(신선, 냉장) HS코드 0704901000의 실적임.

2) 평년은 2017~2021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관세청

4.1.3. 공급 동향

- 2022년 양배추 총 공급량은 전년 대비 3.1% 감소한 37만 3천 톤이었다.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의 영향으로 국내 생산량이 줄었고 순수입량 역시 전년보다 적었다. 그러나 평년보다는 12.0% 많은 수준이다.
 - 양배추 자급률은 생산량 및 수출량 감소로 2021년 100.5%에서 2022년 99.6%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 양배추 1인당 공급량은 7.2kg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하였으나 평년보다는 12.3% 증가하였다.

[표 10-30] 양배추 공급 동향

단위: 천 톤

구분	총 공급량 (A+B-C)	국내 생산량 (A)	수입량 (B)	수출량 (C)	자급률 (%)	1인당 공급량(kg)
2022	373	371	4	3	99.6	7.2
2021	385	387	4	6	100.5	7.4
평년	333	329	13	8	98.7	6.4
전년 대비(%)	-3.1	-4.1	-2.2	-60.7	-0.9	-2.7
평년 대비(%)	12.0	13.0	-65.5	-69.1	0.9	12.3

주 1) 자급률=국내 생산량/총공급량, 자급률의 전년 및 평년 대비 증감률은 %p를 의미함.

2) 1인당 공급량=총 공급량/인구수

3) 평년은 2017~2021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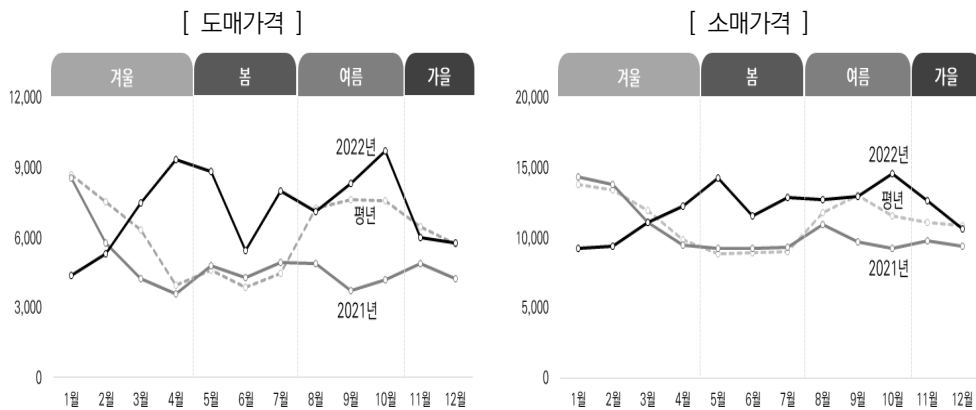
4.1.4. 가격 동향

- 2022년 양배추 상품 8kg당 도매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대비 47.6%, 19.1% 상승한 7,150원이었다.
 - 봄양배추(5~7월) 가격은 전년대비 58.8%, 71.7% 높은 7,430원이었다. 전년도 겨울양배추의 출하 공백과 함께 봄양배추의 재배면적도 감소했다. 여기에 4월 고온과 가뭄의 영향이 겹치면서 단수도 7% 이상 감소하였다.
 - 여름양배추(8~10월) 가격도 봄부터 이어진 작황 부진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96.7%, 12.1% 상승한 8,400원에서 형성되었다.

- 가을양배추 가격은 11월과 12월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11월 가격은 정식기 집중호우로 작황이 부진했고, 12월은 하순 강설 영향으로 출하 여건이 좋지 못해 출하량이 감소하여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높은 5,910원에 형성되었다.
- 2022년 양배추 8kg 당 소매가격(상품 기준)도 생산량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10,480원)과 평년(11,190원)보다 각각 14.8%, 7.5% 높은 12,030원이었다.

그림 10-9. 월별 양배추 도매 및 소매가격 동향

단위: 원/8kg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2년 가구소비자 양배추 소비 행태¹²⁾

- 가구소비자의 양배추 구입 주기는 ‘월 1회(35.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월 2회 이상(25.8%)’, ‘2개월당 1회(14.0%)’ 순이었다.
- 양배추는 생식과 부식 재료로 주로 사용되어 구매 주기가 배추에 비해 짧다. 전체적으로는 1개월에 1~2포기 정도 구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양배추 섭취 용도로는 ‘생식’이 50.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찜(33.4%)’, ‘반찬용(13.9%)’ 순이었다.

[표 10-31] 가구소비자의 양배추 구입 주기

단위: %

구분	주2회 이상	주1회	월2회 이상	월1회	2개월1회	3개월1회	6개월1회	연1회
양배추	2.3	10.8	25.8	35.8	14.0	5.8	3.0	2.5

자료: 농업관측센터

- 양배추 가격 상승 시 대체 품목으로는 ‘배추(16.9%)’, ‘양상추(14.9%)’, ‘쌈배추, 열갈이, 우거지 등 기타 배추류(14.6%)’ 순으로 나타났다.
- 작년 대비 양배추 소비량은 비슷(66.7%)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증가(16.5%)와 감소(16.8%) 비중은 비슷한 수준이다.
- 소비 감소를 응답한 가구는 ‘식습관의 변화’, ‘가족 구성원 수 감소’, ‘가격 상승’ 등이 주요 이유였으며, 소비 증가를 응답한 가구는 ‘식습관 변화’, ‘건강에 좋아서’ 등이 소비 증가의 주요 이유였다.

12)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6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2022.12.20.~23.)

4.2. 수급 전망

4.2.1. 2022년산 겨울양배추 생산 전망

- 2023년 1~4월 출하되는 2022년산 겨울양배추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19만 2천 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평년보다는 25.3% 많은 수준이다.
-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7% 감소, 평년 대비 10.4% 증가한 3,259ha이다. 9월 상순 태풍 영향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호남지역에서 재배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평년 대비 증가하였다.
- 단수는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2.6%, 13.4% 증가한 10a당 5,879kg으로 전망된다. 2월 저온과 가뭄으로 작황 부진했던 전년보다는 작황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침수 피해 면적을 제외하면 태풍 피해도 크지 않다.

[표 10-32] 2022년산 겨울양배추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톤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2년산	3,259	5,879	191,557
2021년산	3,350	5,730	191,941
평년	2,951	5,182	152,929
전년 대비(%)	-2.7	2.6	-0.2
평년 대비(%)	10.4	13.4	25.3

주: 식재년도 기준이며, 평년은 2017년산~2021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농업관측센터

4.2.2. 2023년 전망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 결과, 평년 단수를 적용한 2023년 봄양배추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 수준인 7만 2천 톤으로 전망된다.
- 봄양배추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4.6% 감소하고 평년과는 비슷한 1,618ha로 전망된다. 전년 겨울양배추 생산 과잉, 봄양배추 수익성 악화 등이 재배면적 감소의 요인이다.

- 재배방식별로는 시설봄양배추가 전년보다 4.5%, 노지봄양배추는 4.7% 감소하겠으며 주요 전환 작목으로는 감자, 양파, 마늘 등으로 조사되었다.
- 향후 겨울양배추 한파 피해가 발생하여 봄양배추 정식기(1~4월) 가격이 상승할 경우 재배면적은 변동될 수 있다.

[표 10-33] 2023년 봄양배추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톤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3	1,618	4,459	72,128
2022	1,696	4,223	71,625
평년	1,617	4,459	72,116
전년 대비(%)	-4.6	5.6	0.7
평년 대비(%)	0.0	-	0.0

주 1) 2023년 농업관측센터 전망치임.

2) 평년은 2018~2022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KREI-KASMO 모형 추정 결과, 2023년 여름양배추 생산량(평년 단수 적용)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2.8%, 7.1% 증가한 8만 톤 내외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전년도 도매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생산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로 전년 대비 2.9% 감소한 1,829ha로 추정된다. 배추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 양배추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소비량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평년보다 7.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가을양배추 생산량(평년 단수 적용)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5.4%, 5.8% 감소한 2만 9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전년도 출하기(11~12월) 도매가격 하락으로 전년과 평년보다 8.8%, 5.8% 감소한 648ha로 추정된다.
- 2023년 전체 양배추 생산량¹³⁾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6.5%, 0.6% 감소한 34만 4천 톤으로 전망된다.
 - 양배추 재배면적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6.5%, 0.6% 감소한 7,058ha로 전망된다.

13) 2023년산 겨울양배추 생산량이 포함된 수치이며, 2023년산 겨울양배추는 2024년에 출하되어 2023년 생산 전망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음.

4.2.3. 중장기 전망

- KREI-KASMO 모형 추정 결과, 양배추 재배면적은 2023년 7,058ha에서 2032년 8,612ha로 연평균 2.0% 증가할 전망이다.
 - 배추에서의 작목 전환과 식습관 변화 등의 수요 증가가 재배면적 증가의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양배추 총 공급량은 2023년 34만 6천 톤에서 2032년 39만 5천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양배추 공급량은 다른 엽근채소와 다르게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자급률도 2023년 99.3%에서 2032년 98.8%로 매우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양배추 1인당 공급량은 총 공급량 증가 추세에 따라 2023년 7.2kg에서 2032년 7.7kg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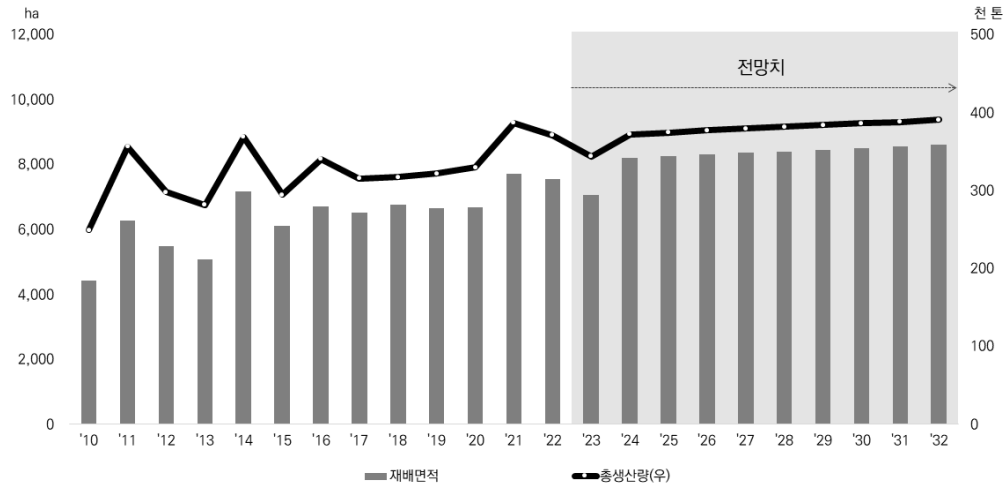
[표 10-34] 양배추 중장기 수급 전망

구분	단위	2022	2023	2027	2032
재배면적	ha	7,550	7,058	8,364	8,612
총 공급량(A=B+C)	천 톤	373	346	383	395
국내 생산량(B)	천 톤	371	344	380	391
순수입량(C=D-E)	천 톤	2	2	4	5
수입량(D)	천 톤	4	4	6	8
수출량(E)	천 톤	3	2	2	3
자급률(B/A)	%	99.6	99.3	99.0	98.8
1인당 공급량	kg	7.2	7.2	7.5	7.7

주: 1인당 공급량=총 공급량/인구수

자료: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그림 10-10. 양배추 재배면적 및 생산량 중장기 전망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부록: 배추 수급 동향(2000~2022년)

[부표 10-1] 배추 작형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 천 톤

구분	전체		봄		여름		가을		겨울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00	51,801	3,149	20,405	768	10,206	385	16,413	1,617	4,777	380
2001	49,539	3,041	19,435	678	10,234	399	14,169	1,447	5,701	517
2002	39,236	2,317	13,867	365	8,018	302	11,293	1,079	6,058	570
2003	47,686	2,678	19,405	510	8,796	335	12,596	1,157	6,889	677
2004	44,623	2,865	16,941	530	7,935	313	13,858	1,415	5,889	608
2005	37,203	2,325	14,364	443	6,502	254	11,001	1,115	5,336	514
2006	42,035	2,749	14,393	421	7,051	281	14,368	1,422	6,223	625
2007	34,265	2,217	10,335	303	6,311	253	12,178	1,139	5,441	522
2008	37,285	2,585	11,061	370	6,401	247	14,693	1,505	5,130	463
2009	34,321	2,529	10,562	408	5,553	211	14,462	1,583	3,744	327
2010	33,501	2,079	10,557	356	4,929	137	13,540	1,188	4,475	398
2011	40,587	2,947	14,859	573	4,691	144	17,326	1,897	3,711	332
2012	29,524	2,002	6,819	162	5,495	203	13,408	1,298	3,802	339
2013	32,020	2,299	7,542	212	5,498	201	15,095	1,536	3,885	351
2014	32,027	2,539	7,434	364	5,140	183	15,233	1,698	4,220	293
2015	27,174	2,135	6,231	287	4,721	150	12,724	1,436	3,498	262
2016	24,902	1,793	5,711	266	4,370	141	11,429	1,128	3,392	258
2017	32,416	2,396	9,001	429	5,385	255	13,674	1,363	4,356	349
2018	31,143	2,392	7,368	351	5,727	278	13,313	1,404	4,735	359
2019	25,837	1,860	6,531	339	4,980	234	10,968	1,060	3,358	227
2020	30,949	2,243	7,815	401	5,056	222	13,854	1,340	4,224	280
2021	30,501	2,072	7,915	398	5,551	245	13,345	1,147	3,690	281
2022	30,080	2,211	7,465	334	5,363	214	13,617	1,340	3,635	323

주 1) 봄배추는 시설 및 노지 결구배추와 기타배추를 모두 포함함.

2) 2014년 이전 겨울배추 자료는 전라남도 행정통계임.

3) 2021년 겨울작형 면적 및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4) 2022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전라남도청, 농업관측센터

[부표 10-2] 배추 및 김치 수출입 동향

단위: 톤

구분	배추		김치		전체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00	492	11,353	23,433	473	53,517	12,444
2001	3,005	239	23,785	393	56,876	1,144
2002	1,028	2,148	29,213	1,042	67,204	4,467
2003	407	9,857	33,064	28,707	75,523	74,056
2004	8,717	5,394	34,828	72,605	87,134	171,962
2005	3,378	1,369	32,307	111,459	76,963	257,157
2006	859	3,903	25,600	177,959	58,910	408,595
2007	1,188	2,059	26,470	218,910	60,970	495,324
2008	5,808	141	26,897	222,370	66,622	505,117
2009	7,201	111	28,505	148,124	71,454	335,910
2010	2,546	13,565	29,672	192,936	69,313	447,943
2011	8,574	6,325	27,429	230,078	70,522	527,247
2012	6,120	1,884	27,664	218,845	68,662	495,395
2013	6,749	1,402	25,631	220,218	64,766	499,533
2014	13,925	188	24,742	212,938	69,881	481,927
2015	18,087	317	23,111	224,124	70,370	506,502
2016	14,798	381	23,491	253,432	67,853	571,919
2017	25,293	288	24,311	275,631	80,281	622,957
2018	24,021	83	28,231	290,742	87,870	658,482
2019	28,700	450	29,629	306,049	95,815	691,879
2020	24,413	643	39,748	281,187	114,170	638,467
2021	24,621	67	42,544	240,606	120,950	541,765
2022	18,374	2,030	41,181	263,422	110,857	598,751

주 1) 전체는 배추 수출입량에 김치를 배추로 환산한 수출입량을 더한 값으로 작형별 환산계수는 봄 0.45, 여름 0.4, 가을 0.52, 겨울 0.45임.

2) 2015~2018년 신선배추 수입량은 대만 등으로 수출되었다가 검역문제로 반품된 물량임.

자료: 관세청

[부표 10-3] 배추 공급 동향

단위: 천 톤, %, kg

구분	총 공급량 (A+B)	국내 생산량 (A)	순수입량 (B)			자급률	1인당 공급량
				수입량	수출량		
2000	3,108	3,149	-41	12	54	101.3	66.1
2001	2,985	3,041	-56	1	57	101.9	63.0
2002	2,254	2,317	-63	4	67	102.8	47.3
2003	2,677	2,678	-1	74	76	100.1	55.9
2004	2,950	2,865	85	172	87	97.1	61.4
2005	2,506	2,325	180	257	77	92.8	52.0
2006	3,099	2,749	350	409	59	88.7	64.0
2007	2,652	2,217	434	495	61	83.6	54.5
2008	3,023	2,585	438	505	67	85.5	61.6
2009	2,793	2,529	264	336	71	90.5	56.7
2010	2,458	2,079	379	448	69	84.6	49.6
2011	3,403	2,947	457	527	71	86.6	68.2
2012	2,428	2,002	427	495	69	82.4	48.4
2013	2,734	2,299	435	500	65	84.1	54.2
2014	2,951	2,539	412	482	70	86.0	58.1
2015	2,571	2,135	436	507	70	83.0	50.4
2016	2,297	1,793	504	572	68	78.1	44.9
2017	2,938	2,396	543	623	80	81.5	57.2
2018	2,963	2,392	571	658	88	80.7	57.4
2019	2,456	1,860	596	692	96	75.7	47.4
2020	2,767	2,243	524	638	114	81.1	53.4
2021	2,493	2,072	421	542	121	83.1	48.2
2022	2,699	2,211	488	599	111	81.9	52.3

주 1) 수출입량=배추 수출입량+김치를 배추로 환산한 수출입량, 작형별 환산계수는 봄 0.45, 여름 0.4, 가을 0.52, 겨울 0.45임.

2) 순수입량은 수입량과 수출량의 차이를 의미함.

3) 자급률=국내 생산량/총 공급량

4) 1인당 공급량=총 공급량/인구수

자료: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부표 10-4] 배추 가격 동향

단위: 원/10kg

구분	도매가격		소매가격
	경락가격	중도매인 판매가격	
2000	3,606	5,172	6,735
2001	2,755	4,240	5,481
2002	3,362	4,306	5,448
2003	4,270	6,931	7,749
2004	2,996	4,638	5,994
2005	3,604	5,201	6,456
2006	5,474	6,167	8,046
2007	4,805	5,201	6,963
2008	3,847	4,409	6,183
2009	5,123	5,836	7,839
2010	9,347	10,619	12,648
2011	6,131	7,743	8,625
2012	6,765	8,371	8,445
2013	7,118	9,021	10,038
2014	3,895	4,789	7,056
2015	5,290	5,540	7,704
2016	10,039	10,858	12,282
2017	7,710	9,066	11,408
2018	7,108	9,275	12,198
2019	6,463	7,643	10,600
2020	10,152	11,866	15,872
2021	7,668	8,942	12,453
2022	10,531	12,899	15,042

주 1) 경락가격은 가락시장 상품 기준 경락가격임.

2)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상품 기준 도매시장 중도매인 상회에서 소상인·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임.

3) 소매가격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부록: 무 수급 동향(2000~2022년)

[부표 10-5] 무 작형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 천 톤

구분	전체		봄		여름		가을		겨울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00	40,238	1,759	21,630	751	3,377	98	14,627	882	604	28
2001	38,751	1,732	20,473	710	4,017	113	13,689	882	572	27
2002	31,387	1,412	16,534	601	2,741	89	11,372	685	741	37
2003	35,051	1,561	18,733	718	2,926	94	11,345	645	2,047	104
2004	36,303	1,710	19,394	682	2,234	72	11,629	782	3,047	174
2005	27,130	1,277	13,234	452	2,072	64	8,854	579	2,970	182
2006	30,497	1,495	14,890	548	2,442	71	9,758	667	3,407	208
2007	25,835	1,194	11,982	415	2,596	86	7,162	459	4,095	235
2008	27,308	1,402	12,554	455	2,546	76	8,948	675	3,260	196
2009	23,780	1,256	10,362	357	2,042	59	7,771	624	3,605	217
2010	21,891	1,039	8,429	298	2,161	55	7,473	473	3,828	212
2011	29,022	1,492	11,828	393	2,713	75	9,748	717	4,733	307
2012	21,839	1,070	7,600	200	2,552	72	6,826	500	4,861	298
2013	23,264	1,243	8,841	241	2,195	62	7,532	639	4,696	302
2014	21,030	1,297	6,969	307	2,608	79	5,498	482	5,955	429
2015	20,106	1,249	6,879	302	1,981	58	5,769	519	5,477	370
2016	19,255	1,012	6,134	259	2,607	88	5,414	401	5,100	264
2017	22,728	1,159	7,496	311	2,954	98	6,003	458	6,275	292
2018	23,406	1,235	6,847	281	2,900	96	6,095	467	7,564	391
2019	19,503	1,111	5,933	233	2,345	83	5,344	405	5,881	390
2020	20,519	1,179	6,261	249	2,792	114	5,147	397	6,319	419
2021	20,272	1,172	5,696	231	2,769	114	5,919	436	5,888	392
2022	20,179	1,138	5,578	220	2,650	88	6,340	464	5,611	367

주 1) 봄무는 일반무와 기타무를 모두 포함하며, 가을무는 일반무와 총각무를 모두 포함함.

2) 2016년 이전 겨울무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통계임.

3) 2022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농업관측센터

[부표 10-6] 무 공급 동향

단위: 천 톤, %, kg

구분	총 공급량 (A+B)	국내 생산량 (A)	순수입량 (B)			자급률	1인당 공급량
				수입량	수출량		
2000	1,759	1,759	-	-	-	100.0	37.4
2001	1,732	1,732	-	1	-	100.0	36.6
2002	1,412	1,412	-	-	-	100.0	29.6
2003	1,561	1,561	-	-	-	100.0	32.6
2004	1,710	1,710	-	2	2	100.0	35.6
2005	1,276	1,277	-2	-	2	100.1	26.5
2006	1,493	1,495	-2	1	3	100.1	30.8
2007	1,191	1,194	-3	-	4	100.3	24.5
2008	1,406	1,402	3	5	1	99.8	28.7
2009	1,256	1,256	-1	2	2	100.1	25.5
2010	1,043	1,039	4	6	3	99.7	21.0
2011	1,506	1,492	14	16	2	99.1	30.2
2012	1,086	1,070	16	17	1	98.5	21.6
2013	1,256	1,243	13	14	1	99.0	24.9
2014	1,303	1,297	6	8	2	99.5	25.7
2015	1,251	1,249	2	5	3	99.9	24.5
2016	1,015	1,012	3	5	2	99.7	19.8
2017	1,160	1,159	1	4	3	99.9	22.6
2018	1,232	1,235	-2	2	4	100.2	23.9
2019	1,111	1,111	-	4	4	100.0	21.5
2020	1,177	1,179	-2	5	7	100.2	22.7
2021	1,176	1,172	3	8	4	99.7	22.7
2022	1,137	1,138	-1	2	3	100.1	22.0

주 1) 순수입량은 수입량과 수출량의 차이를 의미함.

2) 자급률=국내 생산량/총 공급량

3) 1인당 공급량=총 공급량/인구수

자료: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부표 10-7] 무 가격 동향

단위: 원/20kg

구분	도매가격		소매가격
	경락가격	중도매인 판매가격	
2000	6,290	8,799	12,510
2001	5,060	7,334	11,900
2002	6,315	8,019	13,000
2003	7,421	10,412	15,860
2004	6,143	9,526	15,790
2005	6,899	9,668	15,790
2006	8,385	9,810	15,830
2007	9,783	10,585	16,250
2008	6,817	7,598	12,720
2009	6,931	7,707	12,520
2010	17,002	18,292	22,150
2011	11,646	12,979	17,470
2012	11,278	12,647	16,940
2013	10,633	12,478	16,760
2014	7,629	9,692	12,920
2015	9,652	10,873	15,250
2016	15,914	17,420	22,020
2017	13,041	15,286	21,190
2018	15,841	16,892	24,680
2019	11,652	12,343	18,340
2020	13,260	14,456	22,380
2021	9,887	11,200	17,790
2022	15,823	17,406	23,740

주 1) 경락가격은 가락시장 상품 기준 경락가격임.

2)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상품 기준 도매시장 중도매인 상회에서 소상인·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임.

3) 소매가격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부록: 당근 수급 동향(2000~2022년)

[부표 10-8] 당근 작형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 천 톤

구분	전체		봄		여름		가을		겨울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00	4,459	158	982	22	614	20	246	6	2,617	111
2001	4,226	150	1,004	23	713	21	251	6	2,258	101
2002	3,703	134	1,098	29	397	11	274	7	1,934	85
2003	3,444	129	730	18	396	12	182	4	2,136	95
2004	1,878	67	601	16	243	7	150	4	884	40
2005	3,085	120	497	13	342	11	124	3	2,122	93
2006	2,830	111	546	15	183	6	136	4	1,965	87
2007	1,997	73	591	17	151	4	148	4	1,107	47
2008	2,588	101	726	22	135	4	182	5	1,545	70
2009	2,444	97	665	19	114	4	166	5	1,499	70
2010	2,664	103	825	25	193	5	206	6	1,440	67
2011	2,692	94	689	20	282	8	172	5	1,549	61
2012	2,245	57	777	26	162	4	194	6	1,112	21
2013	2,555	84	760	23	100	3	190	6	1,505	53
2014	2,661	94	708	19	82	3	177	5	1,694	68
2015	3,199	114	1,250	42	108	3	312	11	1,529	58
2016	2,699	78	808	29	321	8	202	7	1,368	34
2017	2,671	91	878	29	165	4	220	7	1,408	50
2018	2,613	90	925	31	134	3	231	8	1,323	47
2019	2,414	81	843	27	293	8	211	7	1,067	39
2020	2,841	91	925	27	367	8	192	7	1,357	50
2021	2,786	99	1,002	33	409	9	169	6	1,206	50
2022	2,345	71	967	28	399	7	164	6	815	30

주 1) 2022년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임.

2) 겨울당근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통계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농업관측센터

[부표 10-9] 당근 수출입 동향

단위: 톤

구분	수출				수입			
	중국	베트남	기타	전체	중국	베트남	기타	전체
2000	-	-	10	10	9,248	-	1,211	10,459
2001	1	-	725	726	11,282	-	2,187	13,469
2002	1	-	9	10	17,652	-	631	18,283
2003	71	-	5	76	35,216	-	446	35,663
2004	-	-	7	7	60,982	-	20	61,002
2005	113	-	65	178	70,462	-	203	70,665
2006	-	-	9	9	78,819	-	392	79,211
2007	-	-	13	13	86,545	-	-	86,545
2008	46	-	252	298	75,408	-	-	75,408
2009	113	-	170	283	72,241	-	11	72,252
2010	72	-	67	139	82,634	24	-	82,658
2011	-	-	54	54	91,791	91	474	92,355
2012	-	-	347	347	91,454	23	-	91,477
2013	-	-	100	100	103,248	50	120	103,418
2014	-	-	90	90	90,002	4,623	-	94,624
2015	-	177	244	421	87,785	4,521	13	92,319
2016	-	-	915	915	94,600	5,715	141	100,456
2017	-	-	153	153	96,978	4,755	-	101,734
2018	-	-	182	182	94,697	4,921	-	99,618
2019	-	-	226	226	98,862	6,479	-	105,342
2020	-	-	197	197	89,515	11,738	-	101,253
2021	-	-	235	235	84,341	7,310	70	91,720
2022	-	-	215	215	88,593	7,651	-	96,244

주: 기타 수출입국은 북마리아나군도, 대만, 미얀마, 몽골, 홍콩, 러시아, 일본 외 20개 국가임.
자료: 관세청

[부표 10-10] 당근 공급 동향

단위: 천 톤, %, kg

구분	총 공급량 (A+B)	국내 생산량 (A)	순수입량 (B)			자급률	1인당 공급량
				수입량	수출량		
2000	169	158	10	10	-	93.8	3.6
2001	163	150	13	13	1	92.2	3.4
2002	152	134	18	18	-	88.0	3.2
2003	165	129	36	36	-	78.4	3.4
2004	128	67	61	61	-	52.3	2.7
2005	190	120	70	71	-	63.0	3.9
2006	190	111	79	79	-	58.4	3.9
2007	159	73	87	87	-	45.7	3.3
2008	176	101	75	75	-	57.3	3.6
2009	169	97	72	72	-	57.4	3.4
2010	185	103	83	83	-	55.4	3.7
2011	186	94	92	92	-	50.4	3.7
2012	148	57	91	91	-	38.5	3.0
2013	187	84	103	103	-	44.8	3.7
2014	189	94	95	95	-	49.9	3.7
2015	206	114	92	92	-	55.4	4.0
2016	178	78	100	100	1	44.0	3.5
2017	192	91	102	102	-	47.1	3.7
2018	187	90	100	100	-	47.8	3.6
2019	186	81	105	105	-	43.4	3.6
2020	192	91	101	101	-	47.3	3.7
2021	190	99	91	92	-	51.9	3.7
2022	167	71	96	96	-	42.4	3.2

주 1) 순수입량은 수입량과 수출량의 차이를 의미함.

2) 자급률=국내 생산량/총 공급량

3) 1인당 공급량=총 공급량/인구수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부표 10-11] 당근 가격 동향

단위: 원/20kg

구분	도매가격		소매가격
	경락가격	중도매인 판매가격	
2000	13,954	14,907	31,173
2001	15,756	17,294	35,307
2002	14,402	15,013	32,577
2003	20,435	19,477	39,185
2004	20,424	19,263	45,685
2005	18,456	18,378	47,510
2006	24,844	24,912	50,937
2007	19,406	18,278	44,750
2008	22,318	21,951	48,573
2009	25,594	25,400	51,265
2010	27,802	26,433	56,553
2011	37,988	36,901	70,690
2012	33,604	33,100	58,818
2013	51,471	54,263	94,077
2014	27,451	29,359	60,303
2015	20,925	26,044	51,885
2016	33,394	39,621	66,727
2017	31,304	40,934	79,400
2018	36,044	42,427	74,895
2019	30,029	35,606	68,997
2020	39,871	46,494	87,373
2021	24,756	31,491	65,750
2022	35,834	41,852	77,835

주 1) 경락가격은 가락시장 상품 기준 경락가격임.

2)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상품 기준 도매시장 중도매인 상회에서 소상인·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임.

3) 소매가격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록: 양배추 수급 동향(2000~2022년)

[부표 10-12] 양배추 작형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 천 톤

구분	전체		봄		여름		가을		겨울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00	4,875	214	1,349	56	1,230	50	578	24	1,718	84
2001	4,533	260	1,170	75	1,146	48	501	32	1,716	105
2002	4,798	238	1,167	55	1,290	53	500	23	1,841	106
2003	4,772	245	1,113	51	1,208	57	477	22	1,974	115
2004	4,896	256	1,060	50	1,242	64	454	21	2,140	121
2005	4,467	251	961	51	1,200	65	412	22	1,894	114
2006	5,322	292	1,145	60	1,587	78	491	26	2,099	127
2007	5,138	286	1,092	60	1,596	77	468	26	1,982	123
2008	5,340	286	1,218	59	1,504	73	522	25	2,097	129
2009	5,167	282	1,002	50	1,744	90	430	21	1,991	121
2010	4,425	249	878	49	973	46	376	21	2,198	134
2011	6,289	356	1,499	81	1,698	78	642	35	2,450	162
2012	5,499	298	1,267	61	1,370	65	543	26	2,319	146
2013	5,089	282	1,123	56	1,195	57	481	24	2,291	144
2014	7,163	369	1,627	78	1,956	86	697	33	2,882	172
2015	6,110	295	1,297	58	1,675	64	556	25	2,582	148
2016	6,724	340	1,460	72	1,682	81	626	31	2,956	157
2017	6,529	316	1,580	77	1,425	64	677	33	2,847	142
2018	6,770	317	1,579	71	1,477	64	677	31	3,038	152
2019	6,668	322	1,537	73	1,765	80	659	31	2,708	137
2020	6,676	330	1,577	69	1,455	66	676	29	2,968	165
2021	7,724	387	1,745	77	1,882	85	748	33	3,350	192
2022	7,550	371	1,696	72	1,884	78	711	30	3,259	192

주 1) 2022년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임.

2) 겨울양배추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통계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농업관측센터

[부표 10-13] 양배추 공급 동향

단위: 천 톤, %, kg

구분	총 공급량 (A+B)	국내 생산량 (A)	순수입량 (B)			자급률	1인당 공급량
				수입량	수출량		
2000	215	214	1	2	1	99.7	4.6
2001	254	260	-6	-	6	102.1	5.4
2002	232	238	-6	1	7	102.5	4.9
2003	249	245	4	5	1	98.4	5.2
2004	254	256	-2	3	5	100.9	5.3
2005	243	251	-8	-	8	103.2	5.0
2006	290	292	-2	1	3	100.7	6.0
2007	289	286	3	5	2	98.9	5.9
2008	276	286	-10	3	13	103.4	5.6
2009	273	282	-9	-	9	103.1	5.6
2010	267	249	17	22	5	93.5	5.4
2011	373	356	17	23	6	95.6	7.5
2012	309	298	11	19	8	96.5	6.2
2013	301	282	19	25	6	93.7	6.0
2014	352	369	-17	1	18	104.7	6.9
2015	286	295	-9	3	12	103.0	5.6
2016	336	340	-5	6	11	101.4	6.6
2017	320	316	4	13	9	98.6	6.2
2018	321	317	3	12	9	99.0	6.2
2019	316	322	-6	12	18	101.9	6.1
2020	360	330	31	37	6	91.6	7.0
2021	385	387	-2	4	6	100.5	7.4
2022	373	371	2	4	3	99.6	7.2

주 1) 순수입량은 수입량과 수출량의 차이를 의미함.

2) 자급률=국내 생산량/총 공급량

3) 1인당 공급량=총 공급량/인구수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부표 10-14] 양배추 가격 동향

단위: 원/8kg

구분	도매가격		소매가격
	경락가격	중도매인 판매가격	
2000	4,374	5,266	6,951
2001	2,834	3,550	5,010
2002	3,208	3,390	5,229
2003	4,442	5,713	8,460
2004	4,789	6,148	9,378
2005	4,007	4,848	7,350
2006	3,602	4,762	7,890
2007	4,641	5,625	7,215
2008	3,757	4,788	7,404
2009	4,507	5,355	7,425
2010	8,001	9,445	11,475
2011	5,477	6,926	8,985
2012	7,505	8,870	10,326
2013	6,002	7,870	9,927
2014	3,301	4,501	6,609
2015	5,441	6,202	8,961
2016	8,044	9,158	11,732
2017	7,120	8,451	11,499
2018	6,683	8,203	11,770
2019	4,892	6,038	9,000
2020	9,056	10,711	14,454
2021	4,846	6,508	10,480
2022	7,153	9,118	12,030

주 1) 경락가격은 가락시장 상품 기준 경락가격임.

2)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상품 기준 도매시장 중도매인 상회에서 소상인·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임.

3) 소매가격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